

팀이름: **deciCA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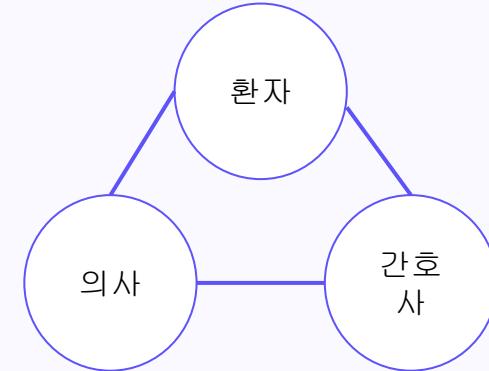
2023-22093 김지원

2024-33681 백재은

2024-29964 조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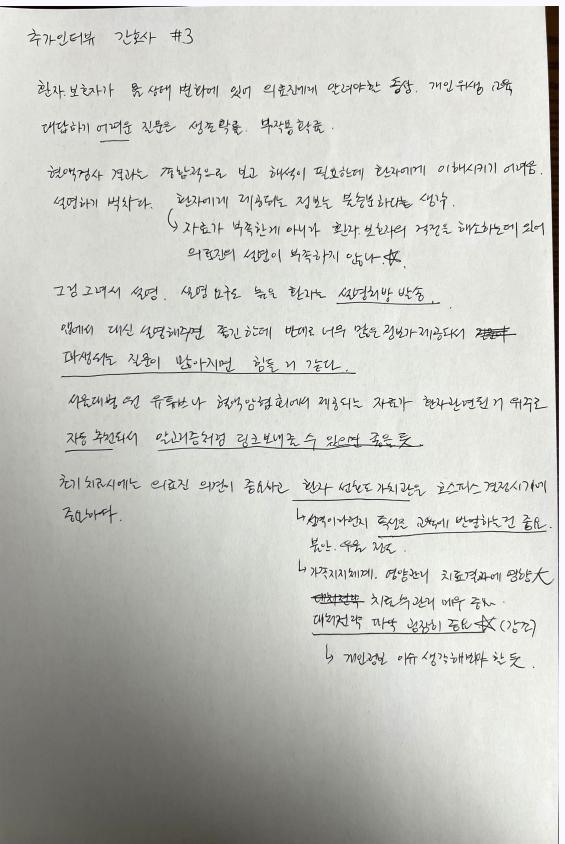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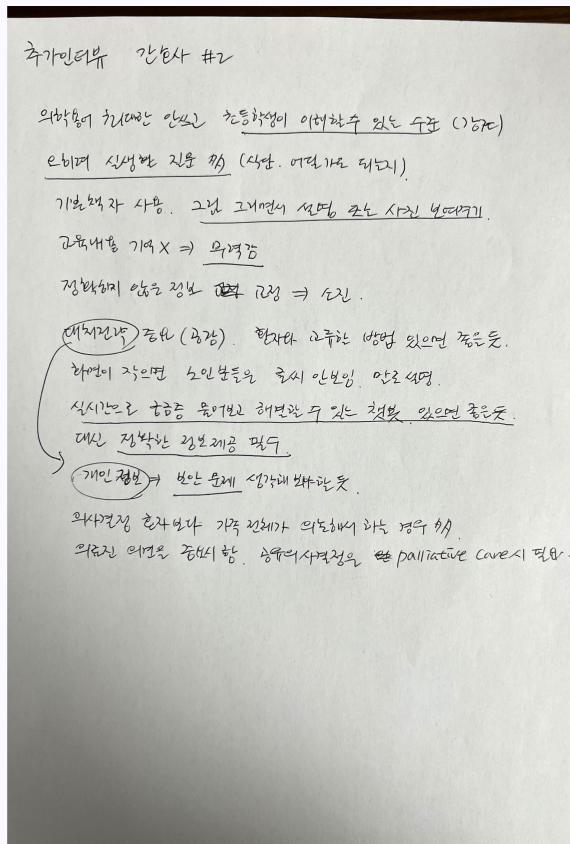
풀고자 하는 문제영역: 혈액암환자와 의료진의 의사결정 공유경험

redesign



추가 인터뷰 메모

1. 환자를 교육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2. 환자 이해했는지 어떻게 확인하시나요?
3. 환자를 교육할 때 환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4. 병원에서 환자한테 제공하는 정보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5. 디지털 자료나 앱을 이용해 교육을 제공한다고 했을 때 어떤 정보가 제공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6. 환자 교육 횟수는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7. 환자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 사용해 본 방법은 무엇이 있으신가요?
8. 환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시기적절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9. 환자를 교육하기 위한 앱을 만든다고 했을 때 어떤 점이 기대되고, 어떤 점이 걱정이 되시는지요?
10. 생활관리 교육을 위해선 앱에 어떤 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11.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들은 보통 어떤 방법으로 치료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12. 환자가 치료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내릴 때 어떤 요소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결정한다고 생각하세요?
13. 임상적 의사결정을 할 때 환자의 가치 또는 선호도를 확인하시나요?
14. 환자의 가치관과 선호도를 반영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15. 치료에서 환자의 어떤 개인적인 특성이 의사결정을 하는 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시나요?
16. 대처전략(coping strategies)을 아는게 치료 또는 교육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17. 이런 대처 전략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Needs

- 환자마다 원하는 정보가 다르고, 이해도가 다르기 때문에 맞춤교육이 필요하다.
- 환자의 대처전략은 개인정보로 보호되어야 한다.
- 사회경제적 상황, 가족지지체계 등의 대처전략을 아는 것은 치료와 교육에 있어서 필요하다.
- 환자가 기억하기 쉬운 교육 자료가 필요하다.
- 환자의 궁금증을 해결해줄 도구가 필요하다.
- 환자에게 교육을 반복해서 제공할 도구가 필요하다.

Insight

- (1) 간호사의 교육을 도와줄 도구가 필요하다.
- (2) 사회경제적 상황, 가족지지체계 등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1

교육간호사는 환자의 질병에 대한 대처전략을 알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대처전략은 교육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시에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2

교육간호사는 환자에게 적절한 양의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환자마다 정보 요구도가 다르고, 환자에게 중요한 것은 정보의 양보다는 환자가
자기관리 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정보를 이해하고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3

교육간호사는 교육자료를 쉽게 수정해줄 도와줄 도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혈액암
특성상 환자마다 맞춤교육이 필요하며 매번 교육자료를 재구성하는 것은
교육간호사의 업무부담을 늘리기 때문이다.

4

교육간호사는 환자 맞춤 교육을 시기적절하게 제공할 방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자원(시간, 인력)의 부족으로 교육이 시기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POV와 각각에 대한 HMW를 만들기 위한 브레인스토밍

POV	교육간호사는 환자의 질병에 대한 대처전략을 알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대처전략은 교육뿐만 아니라 의사 결정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교육간호사는 환자에게 적절한 양의 정보를 반복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환자마다 정보 요구도가 다르고, 환자에게 중요한 것은 정보의 양보다는 환자가 자기관리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정보를 이해하고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교육간호사는 교육자료를 쉽게 수정해줄 도와줄 도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혈액형 특성상 환자마다 맞춤 교육이 필요하며 매번 교육자료를 재구성하는 것은 교육간호사의 업무부담을 늘리기 때문이다.			교육간호사는 환자 맞춤 교육을 자동으로 제공할 방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자원(시간, 인력)의 부족으로 교육이 시기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HWM	무엇이 환자 대처전략을 아는 것을 어렵게 하는가?	어떻게 하면 환자 스스로 본인의 대처전략, 방향성을 알 수 있게 할 것인가?	우리는 교육과정에서 어떻게 환자 개별의 대처전략을 충족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환자마다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의 적절한 양을 알아낼 수 있을까?	무엇이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 필수적인 것과 보조적인 것을 막고 있는가?	교육간호사가 정보를 제공할 때 필수적인 것과 보조적인 것을 나눌 수 있는 학제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만약 의료진이 필요하고 생각하는 정도의 교육과 환자가 원하는 정보 양이 너무 많이 차이나면 어려울지 알아보기?	간호사는 환자의 개인 특성을 살피고 교육자를 쉽게 수용하는 것을 돋보이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드는 것이 효과적일까?	간호사는 교육자료를 쉽게 수정해줄 수 있을까?	만약 인력, 시간 등의 여유가 된다면 교육간호사는 환자에게 더 자주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까?	만약 교육을 자주 제공한다면 환자의 이해도가 증진될까?	만약 현실의 제약이 있다면 가정하에 시기적절하게 교육이 제공된다면 생기거나 문제나 단점은 없을까?
	간호사는 환자와 의사소통방법에 환자 개인의 특성에 대한 대처전략을 갖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어떤 장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간호사는 환자의 대처전략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어떤 장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간호사는 환자에게 어떤 특성을 살피면서 대처전략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어떤 특성을 살피면서 대처전략을 제공할 수 있을까?	필수적으로 제공하고 싶은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환자가 원하는 정보의 양을 언제 확인해야하는가? 시기별 교육을 제공한다면, 매번 확인해야하는가?	어떻게 하면 핵심 정보만 우선 제공하고 나머지는 환자가 필요할 때 꺼내보는 방식으로 구조화할 수 있을까?	간호사는 개인 특성을 고려한 맞춤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드는 것을 쉽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간호사의 교육자료를 재구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드는 것이 효과적일까?	간호사는 정말 반복적인 설명을 원하는가?	사람에게 교육을 더 듣고 싶어하는 이유는 어떤 것인가? 일상시작으로 학습하는 흐름은 어떤 것인가? 교육 시기마다 교육 내용은 어떤 것인가? 환자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이유는 어떤 것인가?	증진되는 환자는 정말 반복적인 설명을 원하는가?	증진되는 환자는 어떤 것인가? 일상시작으로 학습하는 흐름은 어떤 것인가? 교육 시기마다 교육 내용은 어떤 것인가?
	간호사는 환자가 자신의 수준에 맞는 대처전략형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환자들을 동기부여로 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을까?	증진되는 환자는 자신의 수준에 맞는 대처전략형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환자들을 동기부여로 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육간호사가 상담 초기에 환자의 대처 전략을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환자 및증 교육 콘텐츠를 자동 추천하는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환자가 실제로 해야 할 행동 중심으로 정보를 구성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보 전달보다 실행 연습에 집중한 교육 방식을 도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간호사의 교육자료의 '익숙한' 특성을 살피면서 조합하는 방식의 업데이트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간호사들이 교육자료를 고려하고 수정하는 내용을 업데이트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	간호사는 자신의 제작이나 쓰임새로 교육 문장이나 리터러시를 구축해 누구나 쉽게 볼리워너 수정할 수 있게 할까?	간호사는 자신의 제작이나 쓰임새로 교육 문장이나 리터러시를 구축해 누구나 쉽게 볼리워너 수정할 수 있게 할까?	간호사는 자신의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서 치료시기마다 필요한 정보를 찾을 때 도움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인가? 일상시작으로 학습하는 흐름은 어떤 것인가?	간호사는 자신의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서 치료시기마다 필요한 정보를 찾을 때 도움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인가? 일상시작으로 학습하는 흐름은 어떤 것인가?
BEST HWM	어떻게 하면 교육간호사가 상담 초기에 환자의 대처 전략을 파악할 수 있을까?			간호사는 환자의 대처 전략을 이해하기 위해 교육자료를 재구성하는 것을 도와줄 도구를 찾을 수 있을까?			간호사의 교육자료 재구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드는 것이 효과적일까?			간호사는 자신의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서 환자에게 맞는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인터랙션 방식을 구성할 수 있을까?		

1. 무엇이 환자 대처전략을 아는 것을 어렵게 하는가?
2. 어떻게 하면 환자가 스스로 본인의 대처전략, 방향성을 알 수 있게 할 것인가?
3. 우리는 교육과정에서 어떻게 환자 개별의 대처전략을 충족할 수 있는가?
4. 간호사가 환자와 의사소통할 때 환자 본인의 질병에 대한 대처전략을 갖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대화과정에 어떤 것을 체크할 수 있을까?
5. 간호사는 환자의 대처전략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앱의 장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6. 간호사는 환자의 대처 전략형성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결정요인(가족관계, 경제수준, 학력수준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어떻게 부담스럽지 않게 접근할 수 있을까?
7. 간호사는 환자가 자신의 수준에 맞는 대처전략형성에 능동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해 환자를 (돌봄제공자)를 동기부여 할 수 있을까?
8. 간호사는 환자가 의료진에게 자신의 상황을 편하게(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도록 돋기 위해서 대화/교육의 상황(환경)을 어떻게 구성해야 할까?
9. 어떻게 하면 교육간호사가 상담 초기에 환자의 대처 전략을 파악할 수 있을까?
10. 어떻게 하면 환자의 말투나 어휘 선택을 통해 그들의 대처 성향을 간호사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할까?
11. 어떻게 하면 짧은 대화나 질문지를 통해 환자의 대처 전략을 탐색할 수 있을까?



POV 2에 대한 HMW

1. 어떻게 하면 환자마다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의 적절한 양을 알아낼 수 있을까?
2. 무엇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양을 줄이는 것을 막고 있는가?
3. 교육간호사가 정보를 제공할 때, 필수적인 것과 부수적인 것을 나눌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4. 필수적으로 제공하고 싶은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5. 환자가 원하는 정보의 양을 언제 확인해야하는가? 시기별 교육을 제공한다면, 매번 확인해야 할까?
6. 어떻게 하면 핵심 정보만 우선 제공하고, 나머지는 환자가 필요할 때 꺼내보는 방식으로 구조화할 수 있을까?
7. 어떻게 하면 환자 맞춤 교육 콘텐츠를 자동 추천하는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을까?
8. 어떻게 하면 환자가 실제로 해야 할 행동 중심으로 정보를 재구성할 수 있을까?
9. 어떻게 하면 ‘정보 전달’보다 ‘실행 연습’에 집중한 교육 방식을 도입할 수 있을까?
10. 간호사는 환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치료라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 제공할 정보의 양을 어떻게 설정할 수 있을까?
11. 간호사는 환자가 치료과정에 순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성공적 치료사례나 경험담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제공할 수 있을까?

1. 만약 의료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의 교육과 환자가 원하는 정보 양이 너무 많이 차이나면 어떤일이 일어날까?
2. 간호사가 환자의 개별 특성을 반영한 교육자료를 쉽게 수정하는 것을 돋기 위해서 환자의 개별특성 요인들을 어떻게(어느 수준으로) 구성할 수 있을까?
3. 간호사가 교육자료를 쉽게 수정하기 위해서 기존의 교육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4. 간호사가 환자마다 개인 특성을 고려한 맞춤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수정(업데이트) 방식으로 어떤 방법을 제공할 수 있을까?
5. 간호사가 교육자료를 수정하는 것을 쉽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앱의 장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6. **간호사가 교육자료 재구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드는 것이 효과적일까?**
7. 어떻게 하면 교육자료의 '핵심 블록'을 구성해서 조합하는 방식의 업데이트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
8. 어떻게 하면 간호사들끼리 교육자료를 공유하고 수정본을 저장/활용할 수 있는 내부 플랫폼을 만들 수 있을까?
9. 어떻게 하면 '가장 많이 쓰이는 교육 문장' 라이브러리를 구축해 누구나 쉽게 불러와서 수정할 수 있게 할까?
10. 어떻게 하면 환자 프로파일(나이, 교육수준, 치료단계 등)에 따라 추천 교육자료가 자동 필터링되게 만들 수 있을까?



POV 4 에 대한 HMW

1. 만약 인력, 시간 등의 여유가 된다면 교육간호사는 환자에게 더 자주 교육을 제공할까?
2. 만약 교육을 자주 제공한다면 환자의 이해도가 증진될까?
3. 만약 현실의 제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시기적절하게 교육이 제공다면 생겨날 문제나 단점은 없을까?
4. 환자들은 정말 반복적인 설명을 원하는가?
5. 시기적절한 교육이란, 한번의 입원에서 입원시/입원중/퇴원시/퇴원 후 등의 시기인가, 병기에 따른 시기인가?
6. 만약 시기별로 다른 교육이 제공된다면, 환자들의 이해도나 만족도가 상승될까? 환자의 요구도가 있는가? 간호사가 원하는 것인가?
7. 간호사는 시간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 치료시기에 맞게 자동으로 정보를 제공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8. 간호사가 반복설명하는 것 대신 환자가 스스로 교육자료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9. **간호사는 자원의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서 환자가 필요로 할 때 소통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인터랙션 방식을 구성할 수 있을까?**
10. 간호사가 환자의 치료과정 중 환자가 필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앱을 어떻게 활용 할 수 있을까?
11. 간호사가 환자에게 반복 설명하는 것을 줄이면서도, 환자가 확실하게 교육정보를 습득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는 시각화 자료를 어떻게 구성할 수 있을까?

가장 좋은 HMW 질문 3개와 각 질문의 원천이 되었던 POV

가장 좋은 HMW

어떻게 하면 교육간호사가 상담 초기에 환자의 대처 전략을 파악할 수 있을까?

간호사의 **교육자료 재구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드는 것이 **효과적일까?**

간호사는 자원의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서 **환자가 필요로 할 때 소통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인터랙션 방식을 구성할 수 있을까?

POV

1. 교육간호사는 환자의 질병에 대한 대처전략을 알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대처전략은 교육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시에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3. 교육간호사는 교육자료를 쉽게 수정해줄 도와줄 도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혈액암 특성상 환자마다 맞춤교육이 필요하여 **매번 교육자료를 재구성하는 것은 교육간호사의 업무부담**을 늘리기 때문이다.

4. 교육간호사는 환자 맞춤 교육을 자동으로 제공할 방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자원(시간, 인력)의 부족으로 교육이 시기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좋은 HMW 질문 3개에 대한 IDEA 브레인스토밍

BEST HWM	어떻게 하면 교육간호사가 상담 초기에 환자의 대처 전략을 파악할 수 있을까?	간호사의 교육자료 재구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드는 것이 효과적일까?	간호사는 자원의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서 환자가 필요로 할 때 소통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인터랙션 방식을 구성할 수 있을까?		
IDEA	<p>짧은 문답이나 체크리스트로 환자의 대처전략을 파악한다.</p> <p>교육을 위해 환자가 대처전략을 공유하고 싶은 의도가 있는지 묻는다.</p> <p>대처전략의 보기를 제시한 뒤 본인이 실천하고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p> <p>연령, 시각장애등의 제한점을 고려하여 음성인식 기능을 활용해서 질문 문답을 읽어주고 답변을 취득한다.</p>	<p>대처전략을 파악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의 단어를 아이콘 또는 이미지로 변환해 선택하도록 한다.</p> <p>교육을 위해 개인정보 제공 등의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를 만든다.(개인정보 동의를 거부할 시 간접적으로 파악하는 방법 활용하기)</p> <p>AI tool을 활용하여 교육 효과를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환자 대처전략에 대해 정의한다.</p> <p>교육받은 것들을 실천하려고 할 때 가장 어려움을 주는 요소가 무엇인지 보기를 제시하고 선택하도록 한다.</p>	<p>혈액암 환자의 치료 단계별, 약제별로 교육자료 템플릿을 나눠 관리할 수 있는 공유 저장소를 만들어 누구나 쉽게 불러와서 수정할 수 있게 만든다.</p> <p>AI tool을 활용하여 환자 프로파일(나이, 교육수준, 치료단계 등)에 따라 가장 많이 쓰이는 교육 문장을 필터링 할 수 있게 만든다.</p> <p>AI tool을 활용하여 교육 내용에 적합한 사진, 그림, 동영상상을 생성해 이해도를 증진한다.</p> <p>과거에 제공하였던 교육자료를 기반으로 현재 환자상태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교육자료를 추천해준다.</p> <p>교육 내용과 연관된 동영상 링크 또는 웹페이지 링크를 자동 생성한다.</p>	<p>치료 단계별, 종상별로 나뉜 카드뉴스 형태로 구성하고 환자가 본 카드 이력이 저절되도록 하여 환자가 실제로 무엇을 보았는지 확인 가능하도록 한다.</p> <p>교육 시 교육내용을 음성저작하여 환자에게 링크로 보내 원활 때나 보호자와 함께 들을 수 있도록 한다.</p> <p>교수후 교육 내용에 대한 간단한 퀴즈를 문자로 링크를 보내고 출제할 시 보상()을 제공한다.</p> <p>실시간 채팅을 가능하게 한다.</p> <p>환자가 소통하고자 하는 내용의 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대안(FAQ)을 제시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공한다.</p>	<p>AI로 교육간호사 페르소나를 생성하여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주는 친구를 만든다(영상통화 대체)</p> <p>질의응답 챗봇기능을 삽입한다.</p> <p>환자가 직접 원하는 교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p> <p>환자가 궁금한 것을 질문할 수 있도록 Q&A 게시판을 만들고, 의료진이 회진 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p>
BEST IDEA	짧은 문답이나 체크리스트로 환자의 대처전략을 파악한다.		환자 프로파일(나이, 교육수준, 치료단계 등)을 입력하면 항암스케줄과 교육자료가 자동 완성 되도록 한다.		bubble과 같은 환자-간호사 간 One-to-Many Communication 소통창구를 만든다.

가장 좋은 해결책(아이디어) 3개 고르기



선택 기준: **POV의 insight**를 반영하고 있는가

1. 짧은 문답이나 체크리스트로 환자의 대처전략을 파악한다.
2. 환자 프로파일(나이, 교육수준, 치료단계 등)을 입력하면 항암스케줄과 교육자료를 자동 완성 되도록 한다.
3. **bubble**과 같은 간호사-환자 간 **One-to-Many Communication** 소통창구를 만든다.

경험프로토타입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가정

교육간호사는 환자의 질병에 대한 대처전략을 알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대처전략은 교육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시에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POV1

Solution

1. 대처 전략은 간단한 문답이나 체크리스트로 파악 가능한 정보이다.
2. 대처전략은 교육시간내에 파악할 수 있다.

교육간호사는 교육자료를 쉽게 수정해줄 도와줄 도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혈액암 특성상 환자마다 맞춤교육이 필요하며 매번 교육자료를 재구성하는 것은 교육간호사의 업무부담을 늘리기 때문이다.

POV3

Solu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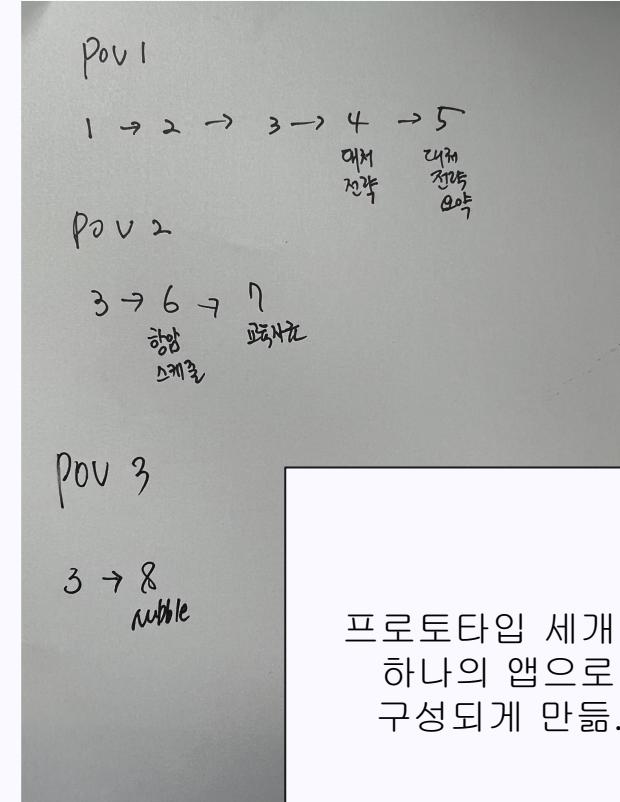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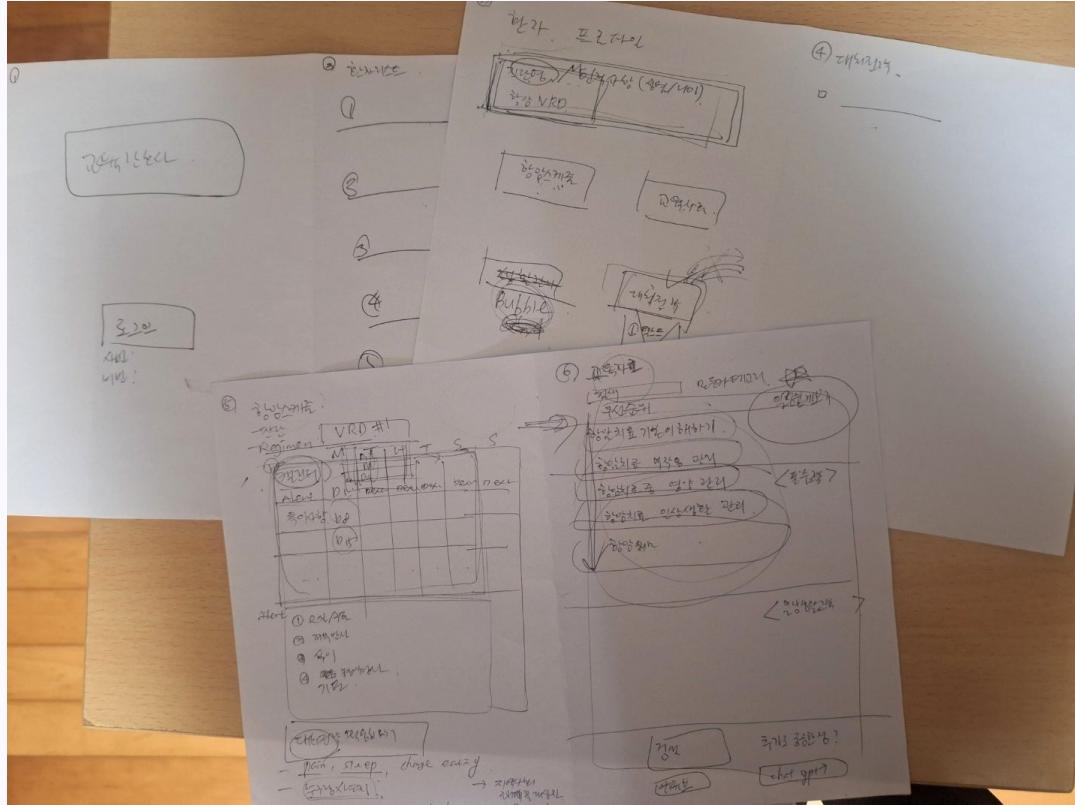
1. 환자 프로파일과 대처전략만으로 맞춤교육을 자동 생성할 수 있다.
2. 간호사는 자동 생성된 교육자료를 신뢰하고 사용할 것이다.

교육간호사는 환자 맞춤 교육을 자동으로 제공할 방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자원(시간, 인력)의 부족으로 교육이 시기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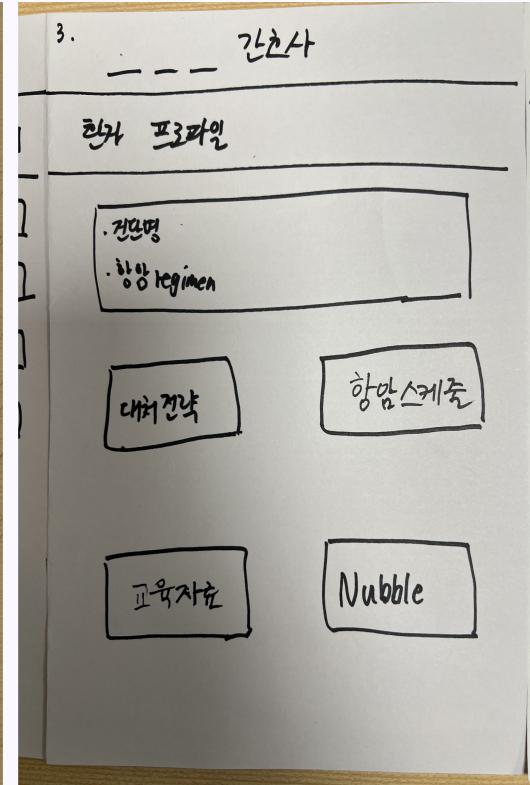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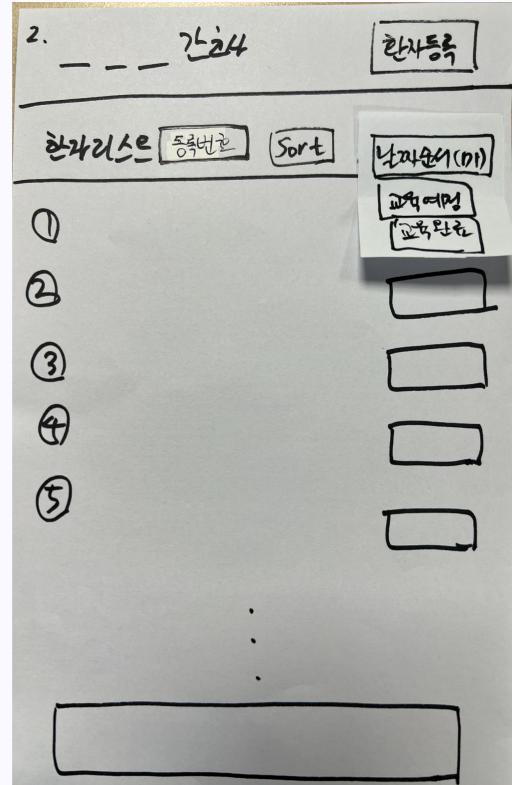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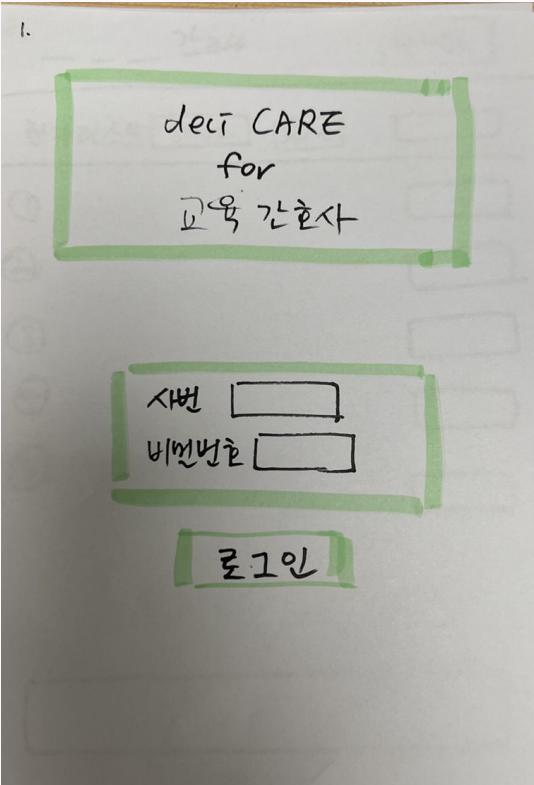
POV4

1. bubble 같은 채팅형 인터페이스가 시기 적절한 정보 제공에 효과적이다.
2. bubble은 환자 화면에서만 1:1 대화 형식으로 보이는 구조로 환자에게 친밀감을 제공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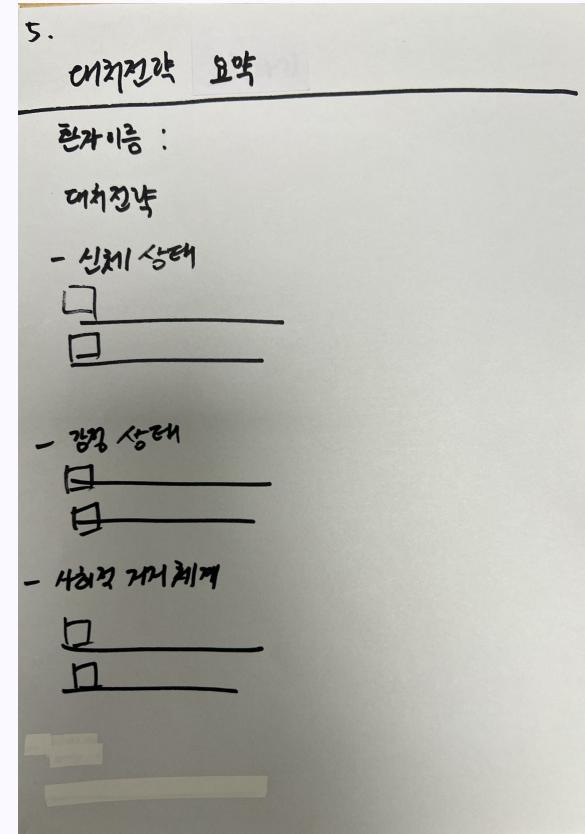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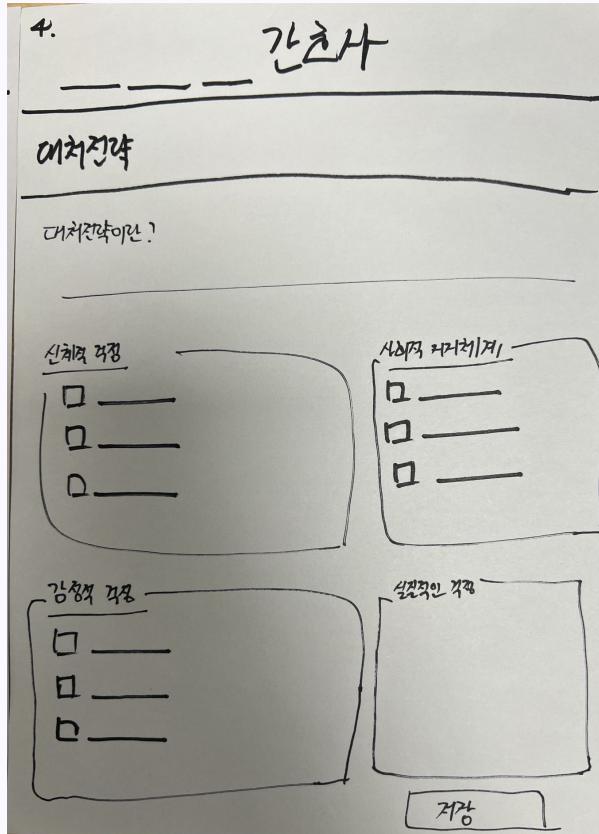
프로토타입 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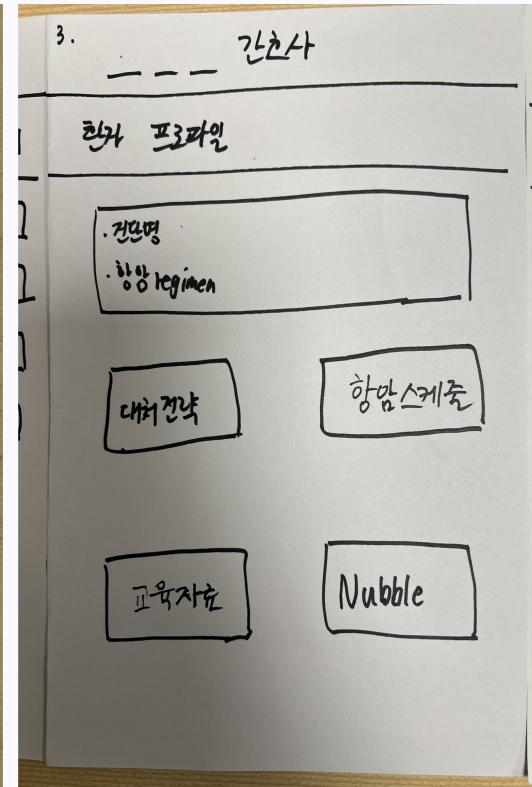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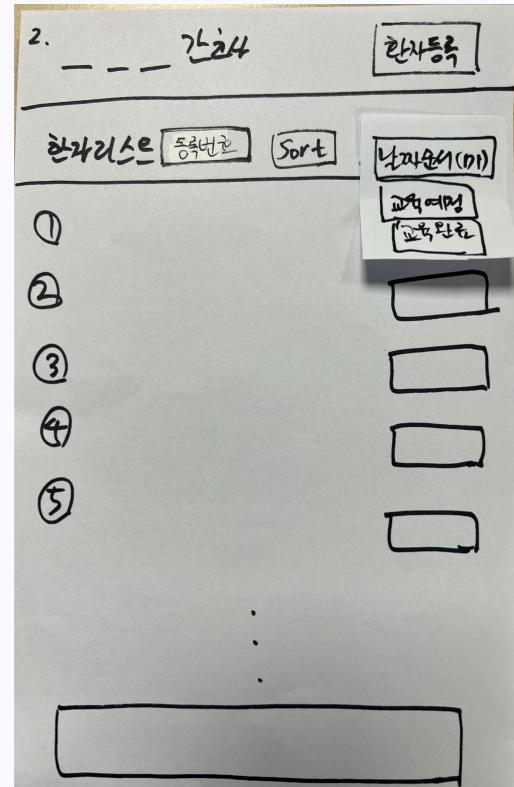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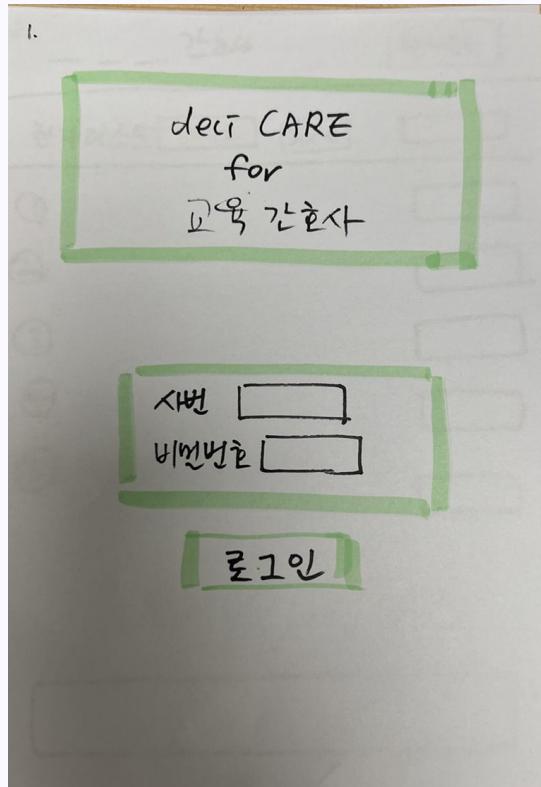
프로토타입 #1 (1->2->3->4->5)



프로토타입 #1 (1->2->3->4->5)



프로토타입 #2 (1->2->3->6->7)



프로토타입 #2 (1->2->3->6->7)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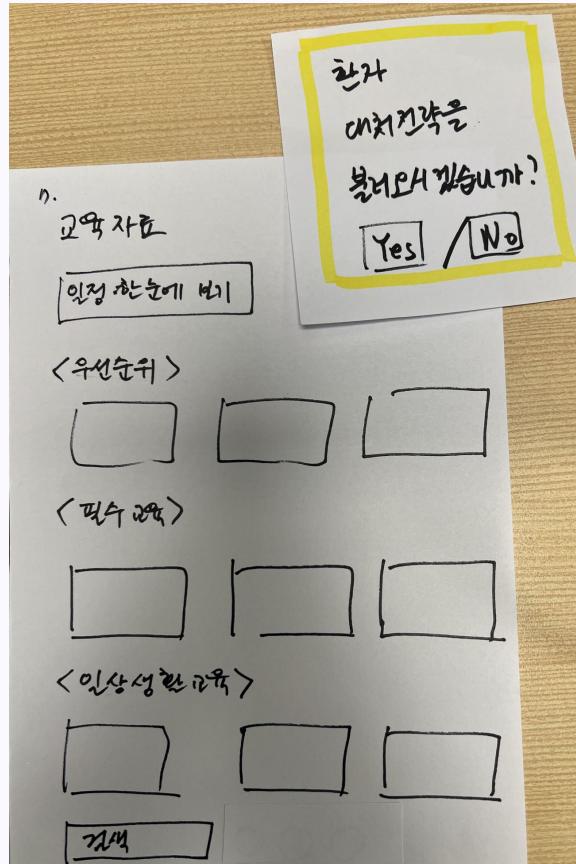
항암스케줄

- 진단명 : MM
- Regimen : VRD indu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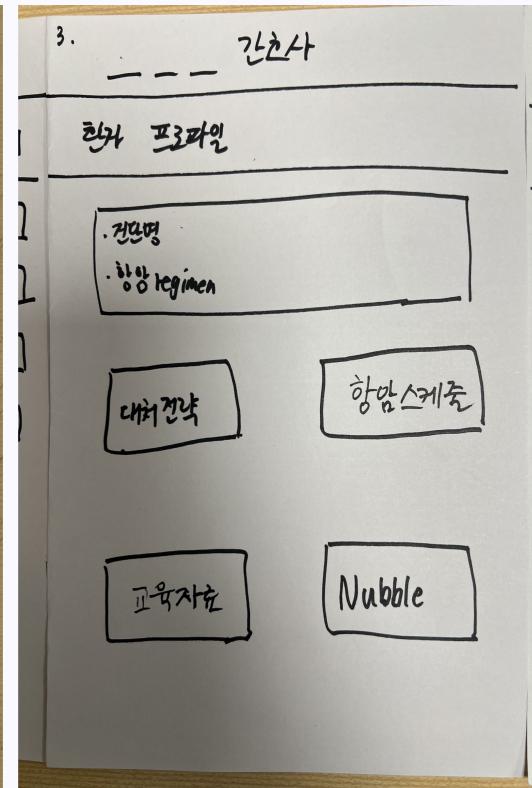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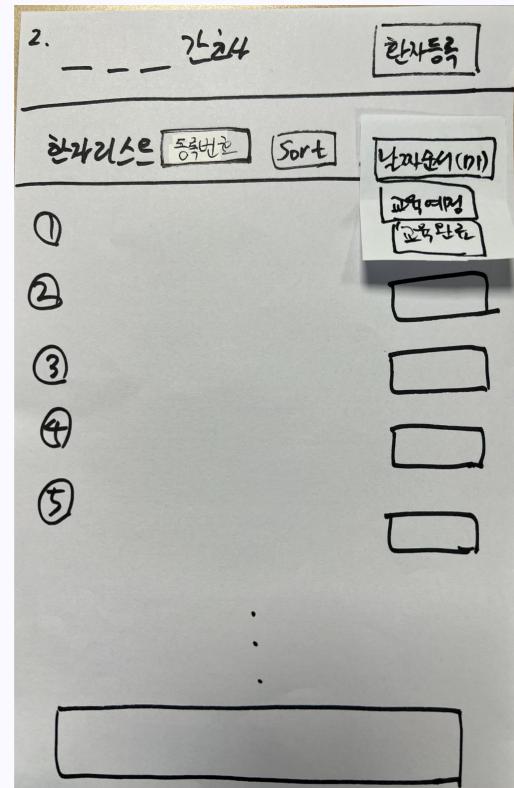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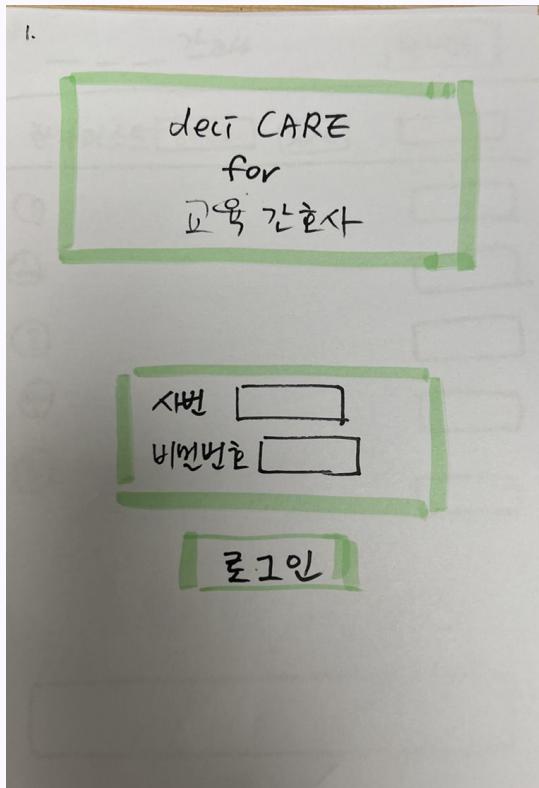
달력						
D1	Bortezomib nexa	"	"			
D8						
D15						

Ale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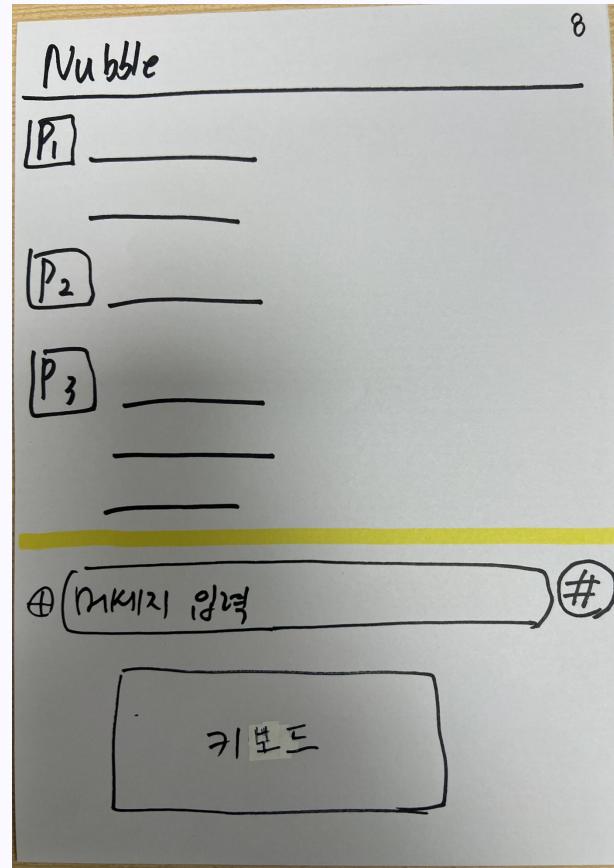
[재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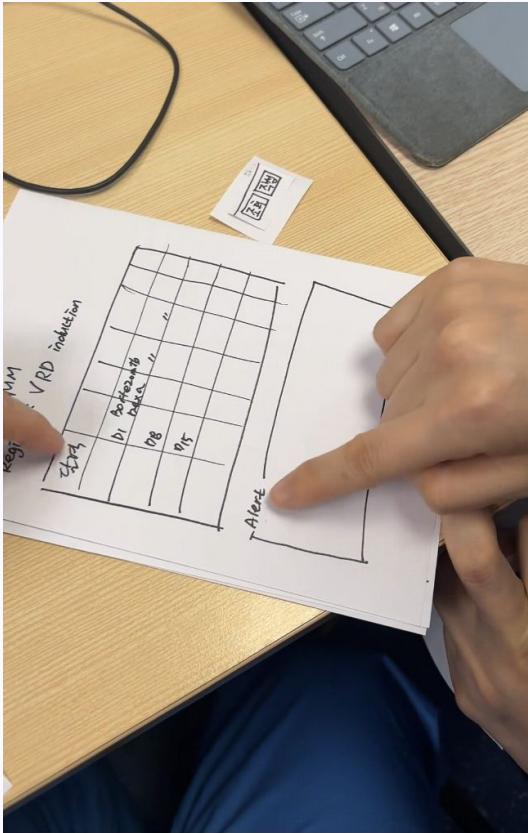
프로토타입 #3 (1->2->3->8)



프로토타입 #3 (1->2->3->8)



프로토타입 테스트 방식



Test #1

POV 1.

대체전략을 아는 걸 좋지만 이것 교육자료에 어짜지
방법바꿨다는 걸 잘 모르겠어~.

POV 2

⑥ 항상 스케줄이 미인 화면이면 좋겠지 / 환자ース트 Sure 뿐이 대가령
날짜 / 시간으로
③ 어서 대체전략, 교육자료, Nubble Alert은 하나로 묶는게 나을듯. 구분하면
좋을듯.

환자 막힘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교육자료가 추천되는 건 좋은듯. 사용다.

필수 교육은 원 기준으로 필수라고 한 것인지. 약을 부작용?
(생물학적 교육 ⇒ 경과는 부작용 많아보임).

POV 3.

⑦ Nubble은 환자 개인 정보가 보호되면서 질문의 갯수가 제한되어 있어서
좋은 것 같다.

⑧ 교육자료 충분할 수 있는 것도 good.

Nubble 채팅. 만들었어?

프로토타입 세개를 하나의 앱으로 구성했기
때문에 모든 프로토타입을 테스트함.

테스트 대상자에게 시나리오에 대해
설명함.

교육간호사라는 역할을 주고 교육자료를
만드는 task를 줌.

교육자료를 만드는 장면을 연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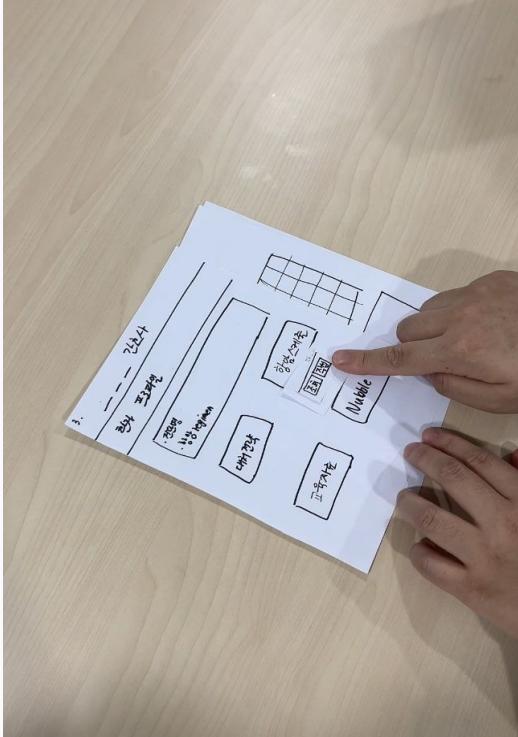
프로토타입 테스트 방식



Test #2

- POV 1
한자 난해 글을 하려 가서 해석하기힘들 이걸 아는 것 암호화에게 중요해
해석하는 자가 빠지는 치환호출도에 영향을 미친다.
한자에서 그걸 시도는 없음. 한자에서 각각은 보내 미세 차이를 찾도록 하고
경고로 보내자. 가능성이 무언가 있다.
- POV 2
한글리스트 학원에서 sort 는 수 있는 값이 더 다양했으면 좋겠다.
한글리스트에서 day count 가 크게 보였으면 좋겠다.
(그는 모든이나 한글 듣기하는 말이 서로 동일하면 좋겠다.)
- POV 3
차팅 bubble은 차용한 것 신경하다. 유동화되면 좋겠다.
개인장에서 바로 짓들이 다 나오면 더욱 것의 질이 좋다.
한자 ~~한글~~리스트만 봐하고 축약해서 들이가면 짓들이 빠지나?
한글-짓들에 대해서는 좋은 자료가 외부에 있으므로 앤드니 외부 경색이 가능하는
가능이 있으면 좋겠다.

프로토타입 테스트 방식



Test #3

Pov 1.

한차례스트에서 ~~한~~ 먼저 교육해야 한 혼자 우정순위는 놓 수 있는 음악도 표시되면 좋겠다.
예전에 부른적이 정적... 필요는 하다.
↳ 조사하는 것 같다. 혼자하는데 미적 낙크는 놔놔야 될듯.
↳ 조사하는 내용을 놔놔야 할듯. 스트리밍 서비스) → 교육하는 사람이
어려운 질문은 잘 만들어야 할듯. 신체상태 지침보통 혼자가
↳ 쉽게 끝나는 3분~4분 이내에 끝나야 해. 부족스러울지도?

Pov 2.

한암스케줄이 출석률을 혼자하는데 누르지? ⇒ 혼인되어 있지 않을.
Alert → 혼인여부는 중요한 보험상 세대에는 내용은 빼고, 혼자는데
영양 정보에 있는 한암시트간 연동이 되면 좋겠다.
→ 단계별 투약 다른 약이 표기되면 좋은듯.
2023

⑦ 교육자료 확장

미국교육은 한암제 약령이나 보험상이 등이 가능하고
우연순위가 AI가 분석한 가장 쉽게 혼자에게 표기되는 내용이 나오면 어떠하지?
→ 혼인여부 쓰기 가능해야 한듯.

교육서로 봐도 바로 혼자 교육자료, 교육한 자료 체크 표시가 있어야 할듯.
→ 구성을 알아보면 좋겠다. 혼자 정보가 있어야 한다. ~~한암제 약령은 혼자~~
한암 스케줄이 보여야 한듯.

Pov 3.

기여하는 질문은 자동 답변이 됨으로 좋겠다. (별도 기능 필요?)
처음 화면에서 혼자 아이콘을 통해 출석하면 혼자 진관정보 등의 기본정보가 핑크로 보여야 한듯
질문을 ~~선택~~ 시개로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니 고려해볼만한 듯.
교육간호의 대상이 통일해야 한듯.
유용 혹은 혼자가 가능성이 생길듯.

▣ 잘된 점

- 환자 대처전략을 기준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교육자료를 추천해주는 방식이 새롭다
- **nubble** 채팅 방식 신선하다 질문 개수 제한 좋은 것 같다
채팅창에서 교육자료 첨부할 수 있어서 좋다

▣ 잘안된 점

- 대처전략을 짧은 교육시간 내에 파악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 체크리스트를 사용해도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
- 우선순위 교육, 필수교육, 일상생활 교육내용이 겹칠 거 같다

▣ 놀랐던 점

- 대처전략을 체크하는 것을 간호사가 지켜보면 환자가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다
- 앱에서 추천해준 우선순위 자료가 실제 우선순위와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
- 채팅창에서 교육간호사들의 대답이 통일돼야 될 것 같다
- 환자의 기본 정보를 알아야 채팅창에서 대답이 가능할 것 같다

▣ 배운 점

- 환자리스트 **sort**기능 다양하게
- 항암스케줄에서 항암날짜 색으로 표시
- 항암스케줄이 메인화면이면 좋겠다
- 교육자료 환자에게 보내기 버튼 필요

경험프로토타입 테스트 결과

프로토타입을 검증한 결과 앞서 세웠던 가정들은 결국 말이 되는 가정들입니까? 왜 그럴까요? 왜 말이 되지 않는 가정일까요? 그 밖에 추가된 가정들도 있었습니까?

검증한 가정

대처 전략은 간단한 문답이나 체크리스트로 파악 가능한 정보이다.(O)

대처전략은 교육시간내에 파악할 수 있다.(X)

이유: 대처전략은 문답으로 파악 가능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고 환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작업이다.

환자 프로파일과 대처전략만으로 맞춤교육을 자동 생성할 수 있다.(?)

간호사는 자동 생성된 교육자료를 신뢰하고 사용할 것이다.(X)

이유: 맞춤교육 자동 생성 요건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고, 대처전략에 따라 생성된 우선순위 교육자료가 실제 교육간호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

bubble 같은 채팅형 인터페이스가 시기 적절한 정보 제공에 효과적이다.(O)

bubble은 환자 화면에서만 1:1 대화 형식으로 보이는 구조로 환자에게 친밀감을 제공할 수 있다.(O)

이유: 환자의 질문에 답해줌으로써 시기 적절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고, 프라이빗한 채팅 환경은 친밀감을 제공하면서 개인정보보호도 가능하다.

추가된 가정

대처전략을 교육전에 조사하면 교육자료 재구성에 도움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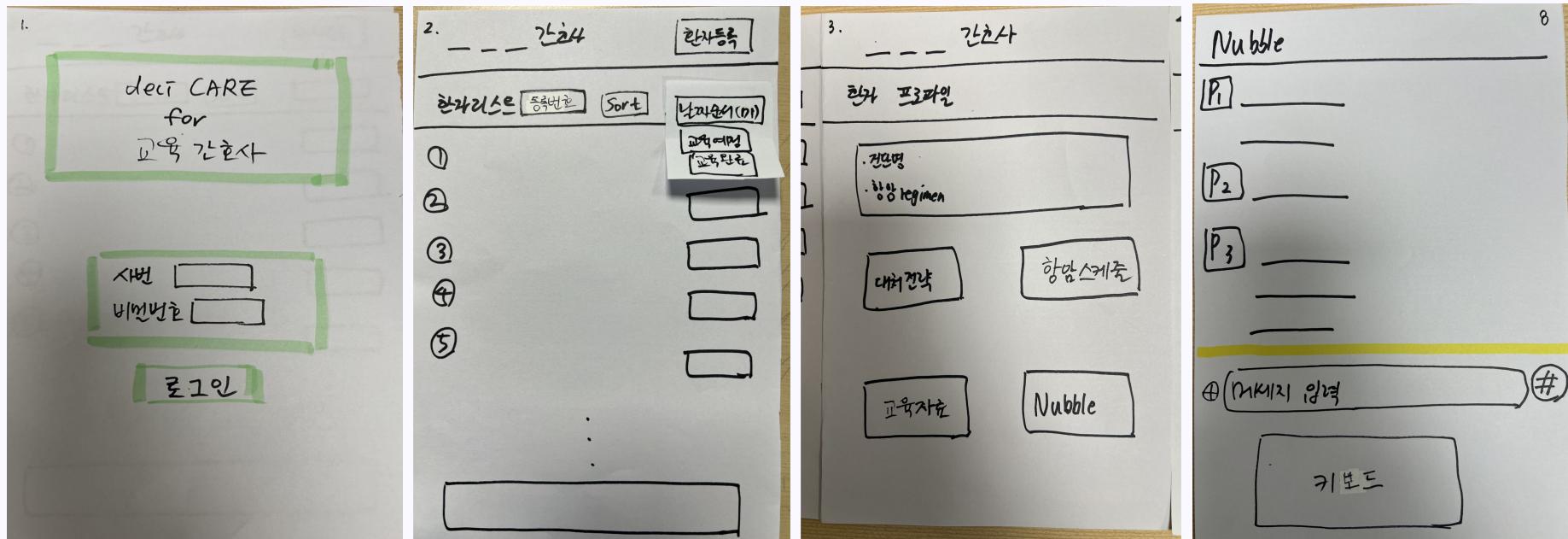
교육간호사마다 선호하는 교육자료 구성 방법이 다를 수 있다.

모든 교육 간호사는 같은 질문에 일관된 대답을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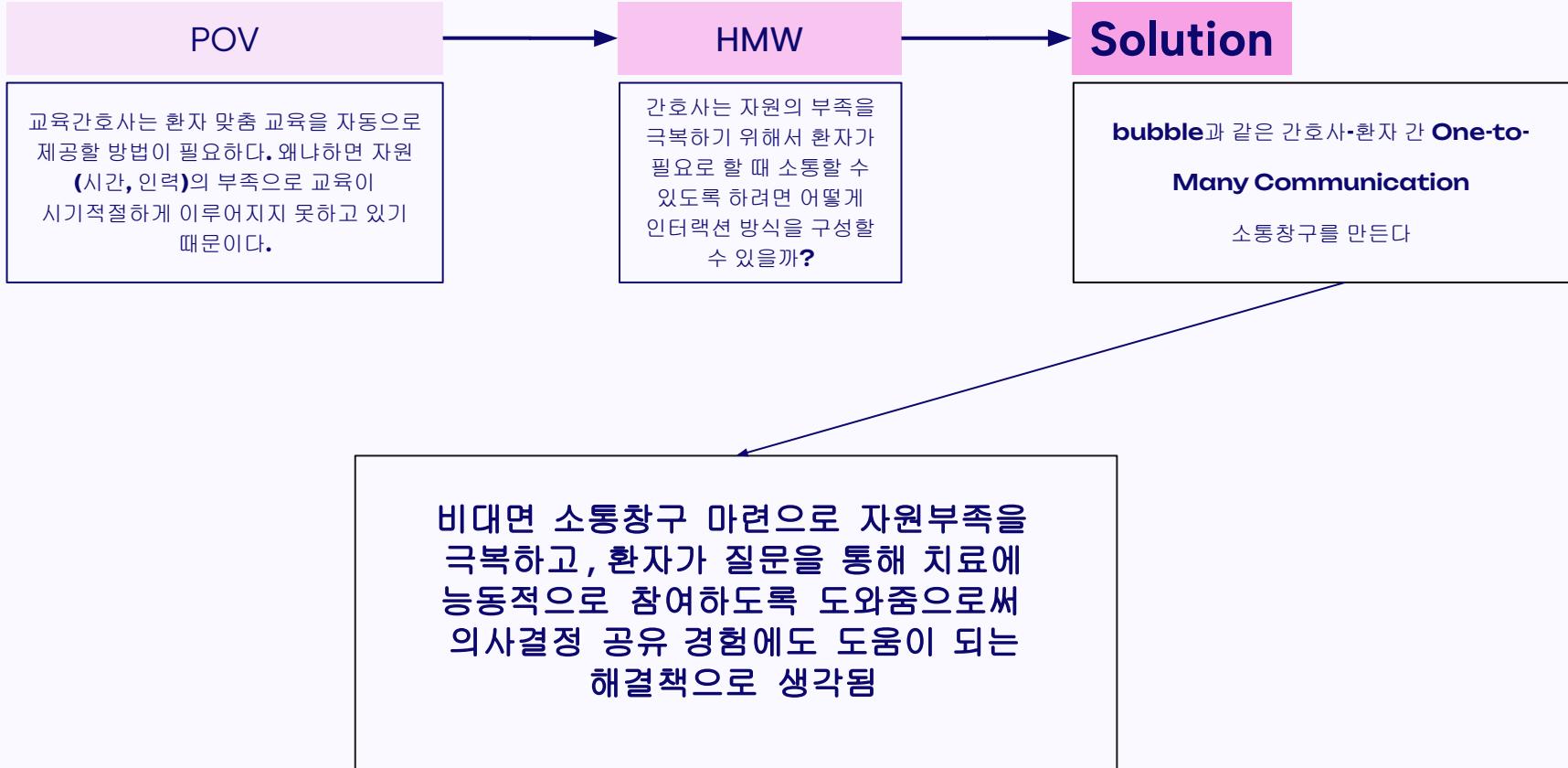
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가장 좋은 프로토타입

테스트를 통해 가정을 모두 검증한 프로토타입 #3

'bubble과 같은 환자-간호사 간 One-to-Many Communication 소통창구를 만든다'



프로토타입 #3을 가장 성공적인 프로토타입으로 선택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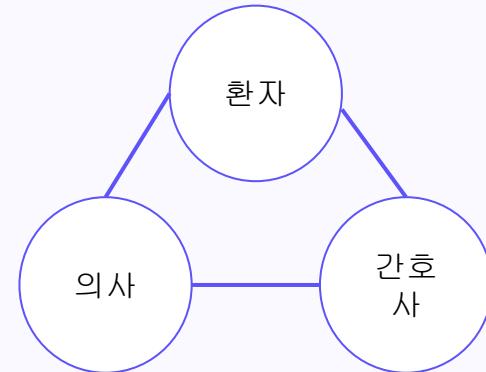


deciCARE

2023-22093 김지원(간호정보학, 응급의료연구)

2024-33681 백재은(간호정보학, CDW관리)

2024-29964 조혜인(간호정보학, 혈액종양내과 전문간호)



풀고자 하는 문제영역: 혈액암환자와 의료진의 의사결정 공유경험

redesign

혈액암환자 간호 경험이 많고, 치료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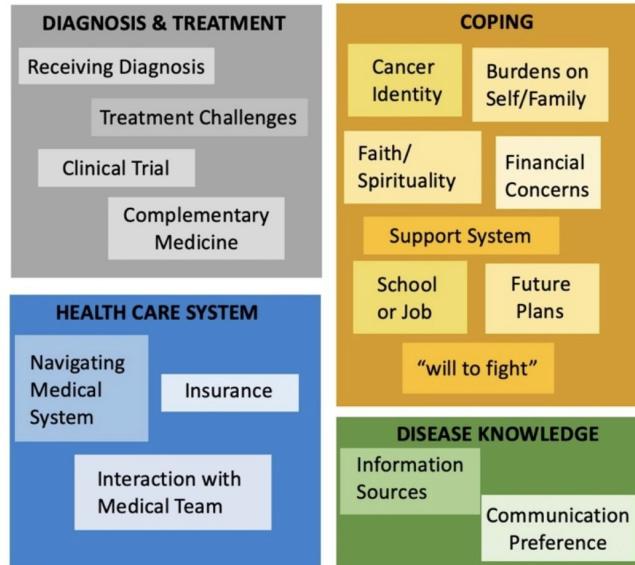


Figure 1B. Emerging themes from qualitative data analysis

혈액종양내과 10년차 간호사

소아혈액종양내과 6년차 간호사

인터뷰장소 : 병원내 카페

대상자 선정 이유:

**(1) 혈액암환자 교육 및 상담 등의
경험이 많음.**

**(2) 현재 환자 사정 및 중재계획,
진료기록작성지원, 처방지원,
증상관리 1차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혈액암환자의 치료 전반에
참여하고 있음.**

Needs

- 환자마다 원하는 정보가 다르고, 이해도가 다르기 때문에 맞춤교육이 필요하다.
- 환자의 대처전략은 개인정보로 보호되어야 한다.
- 사회경제적 상황, 가족지지체계 등의 대처전략을 아는 것은 치료와 교육에 있어서 필요하다.
- 환자가 기억하기 쉬운 교육 자료가 필요하다.
- 환자의 궁금증을 해결해줄 도구가 필요하다.
- 환자에게 교육을 반복해서 제공할 도구가 필요하다.

Insight

- (1) 간호사의 교육을 도와줄 도구가 필요하다.
- (2) 사회경제적 상황, 가족지지체계 등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1

교육간호사는 환자의 질병에 대한 대처전략을 알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대처전략은 교육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시에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2

교육간호사는 환자에게 적절한 양의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환자마다 정보 요구도가 다르고, 환자에게 중요한 것은 정보의 양보다는 환자가
자기관리 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정보를 이해하고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3

교육간호사는 교육자료를 쉽게 수정해줄 도와줄 도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혈액암
특성상 환자마다 맞춤교육이 필요하며 매번 교육자료를 재구성하는 것은
교육간호사의 업무부담을 늘리기 때문이다.

4

교육간호사는 환자 맞춤 교육을 자동으로 제공할 방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자원
(시간, 인력)의 부족으로 교육이 시기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POV와 각각에 대한 HMW를 만들기 위한 브레인스토밍

POV	교육간호사는 환자의 질병에 대한 대처전략을 알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대처전략은 교육뿐만 아니라 의사 결정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교육간호사는 환자에게 적절한 양의 정보를 반복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환자마다 정보 요구도가 다르고, 환자에게 중요한 것은 정보의 양보다는 환자가 자기관리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정보를 이해하고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교육간호사는 교육자료를 쉽게 수정해줄 도와줄 도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혈액형 특성상 환자마다 맞춤 교육이 필요하며 매번 교육자료를 재구성하는 것은 교육간호사의 업무부담을 늘리기 때문이다.			교육간호사는 환자 맞춤 교육을 자동으로 제공할 방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자원(시간, 인력)의 부족으로 교육이 시기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HWM	무엇이 환자 대처전략을 아는 것을 어렵게 하는가?	어떻게 하면 환자 스스로 본인의 대처전략, 방향성을 알 수 있게 할 것인가?	우리는 교육과정에서 어떻게 환자 개별의 대처전략을 충족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환자마다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의 적절한 양을 알아낼 수 있을까?	무엇이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 필수적인 것과 보조적인 것을 막고 있는가?	교육간호사가 정보를 제공할 때 필수적인 것과 보조적인 것을 나눌 수 있는 학제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만약 의료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의 교육과 환자가 일하는 정보 양이 너무 많이 차이나면 어려울지 알아보기?	간호사는 환자의 개별 특성을 살피는 교육자를 쉽게 수용하는 것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개인화된 교육자료를 제공하는지를 고려해보는 수준으로 구현될 수 있을까?	간호사는 교육자료를 제공하는지를 고려해보는지 알아보기?	만약 인력, 시간 등의 여유가 된다면 교육간호사는 환자에게 더 자주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까?	만약 교육을 자주 제공한다면 환자에게 더 이해도가 증진될까?	만약 현실의 제약이 있다면 가정하에 시기적절하게 교육이 제공된다면 생기거나 문제나 단점은 없을까?
	간호사는 환자와 의사소통방법에 환자 개인의 특성에 대한 대처전략을 갖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어떤 장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간호사는 환자의 대처전략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어떤 장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간호사는 환자에게 어떤 특성을 살피면서 대처전략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지를 고려해보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어떤 특성을 살피면서 대처전략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지를 고려해보는지 알아보기?	필수적으로 제공하고 싶은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환자가 원하는 정보의 양을 언제 확인해야하는가? 시기별 교육을 제공한다면, 매번 확인해야하는가?	어떻게 하면 핵심 정보만 우선 제공하고 나머지는 환자가 필요할 때 꺼내보는 방식으로 구조화할 수 있을까?	간호사는 환자마다 개인 특성을 살피고 개인화된 맞춤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인화된 교육자료를 제공하는지를 고려해보는지 알아보기?	간호사는 교육자료를 제공하는지를 고려해보는지 알아보기?	간호사는 교육자료를 제공하는지를 고려해보는지 알아보기?	환자들은 정말 반복적인 설명을 원하는가?	사람들은 교육을 더 듣고 싶어하는지, 개인화된 교육을 원하는지, 개인화된 교육을 원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드는 것이 효과적일까?	영어 시기별로 다른 교육을 제공하는지, 개인화된 교육을 원하는지, 개인화된 교육을 원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드는 것이 효과적일까?
	간호사는 환자가 자신의 수준에 맞는 대처전략형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환자들을 동기부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어떤 활동을 통해 그들의 대처 전략을 형성하는지 고민해보기	환자는 환자와 의사소통방법에 맞도록 개인화된 상황을 반영해 대처전략을 형성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통해 그들의 대처 전략을 형성하는지 고민해보기	어떻게 하면 교육간호사는 상당 초기에 환자의 대처 전략을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환자가 대처전략을 자동 추천하는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환자가 대처전략을 자동 추천하는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환자가 대처전략을 자동 추천하는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육자료의 「핵심 텍스트」을 살피면서 조합하는 방식의 업데이트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간호사들이 교육자료를 고려하고 수정하는지를 고려해보는지 알아보기?	어떻게 하면 교육자료를 고려해보는지 알아보기?	간호사는 시사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 치료시기마다 맞게 자동으로 정보를 제공해보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간호사는 간호사가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 치료시기마다 맞게 자동으로 정보를 제공해보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간호사는 환자의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서 치료시기마다 맞도록 드는 대처를 수 있도록 하면서 아동에게 인상적인 학습을 구성할 수 있을까?
BEST HWM	어떻게 하면 교육간호사가 상담 초기에 환자의 대처 전략을 파악할 수 있을까?			간호사는 환자의 대처 전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드는 것이 효과적일까?			간호사는 자원의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서 환자에게 맞는 교육자료를 찾을 수 있도록 하면서 어떤 학습을 구성할 수 있을까?			간호사는 자원의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서 환자에게 맞는 교육자료를 찾을 수 있도록 하면서 어떤 학습을 구성할 수 있을까?		

가장 좋은 HMW 질문 3개와 각 질문의 원천이 되었던 POV

가장 좋은 HMW

어떻게 하면 교육간호사가 상담 초기에 환자의 대처 전략을 파악할 수 있을까?

1. 교육간호사는 환자의 질병에 대한 대처전략을 알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대처전략은 교육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시에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간호사의 교육자료 재구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드는 것이 효과적일까?

3. 교육간호사는 교육자료를 쉽게 수정해줄 도와줄 도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혈액암 특성상 환자마다 맞춤교육이 필요하며 매번 교육자료를 재구성하는 것은 교육간호사의 업무부담을 늘리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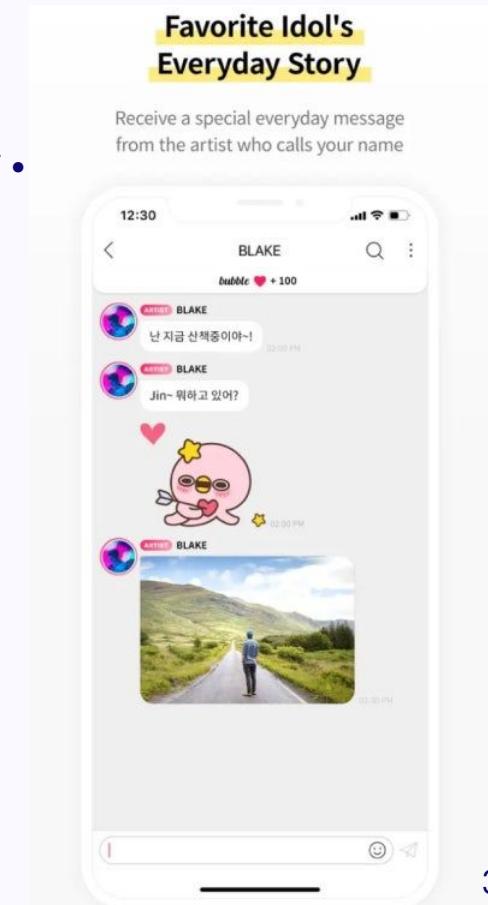
간호사는 자원의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서 환자가 필요로 할 때 소통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인터랙션 방식을 구성할 수 있을까?

4. 교육간호사는 환자 맞춤 교육을 자동으로 제공할 방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자원(시간, 인력)의 부족으로 교육이 시기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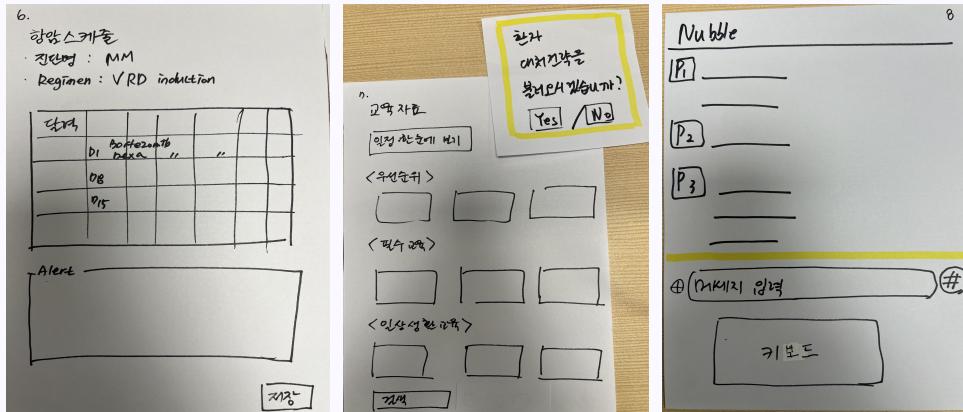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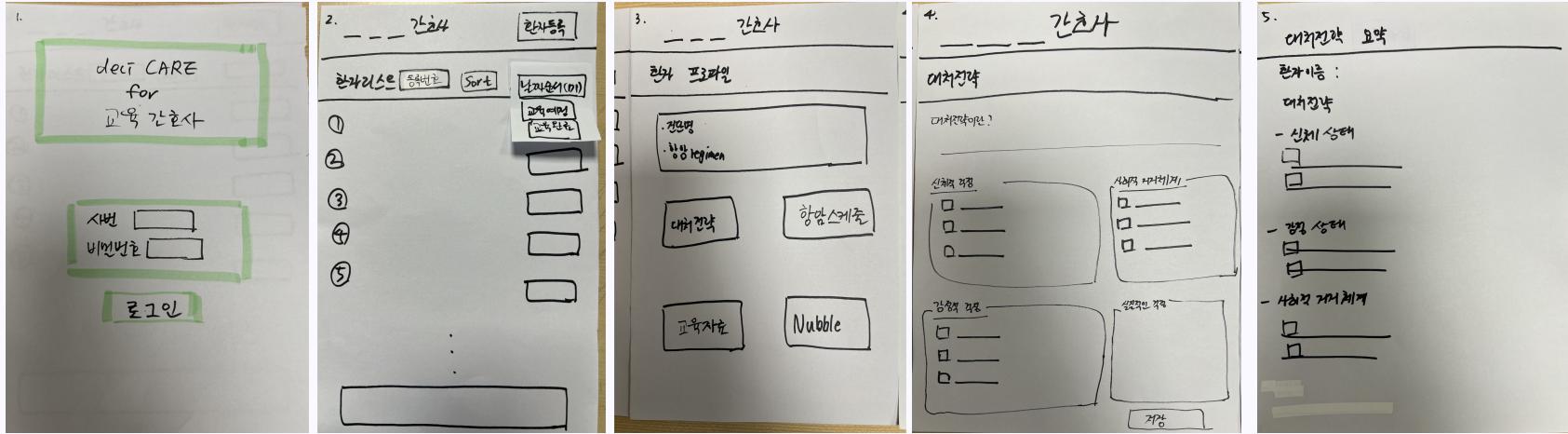
가장 좋은 HMW 질문 3개에 대한 IDEA 브레인스토밍

BEST HWM	어떻게 하면 교육간호사가 상담 초기에 환자의 대처 전략을 파악할 수 있을까?	간호사의 교육자료 재구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드는 것이 효과적일까?	간호사는 자원의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서 환자가 필요로 할 때 소통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인터랙션 방식을 구성할 수 있을까?		
IDEA	<p>짧은 문답이나 체크리스트로 환자의 대처전략을 파악한다.</p> <p>교육을 위해 환자가 대처전략을 공유하고 싶은 의도가 있는지 묻는다.</p> <p>대처전략의 보기를 제시한 뒤 본인이 실천하고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p> <p>연령, 시각장애등의 제한점을 고려하여 음성인식 기능을 활용해서 질문 문답을 읽어주고 답변을 취득한다.</p>	<p>대처전략을 파악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의 단어를 아이콘 또는 이미지로 변환해 선택하도록 한다.</p> <p>교육을 위해 개인정보 제공 등의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를 만든다.(개인정보 동의를 거부할 시 간접적으로 파악하는 방법 활용하기)</p> <p>AI tool을 활용하여 교육 효과를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환자 대처전략에 대해 정의한다.</p> <p>교육받은 것들을 실천하려고 할 때 가장 어려움을 주는 요소가 무엇인지 보기를 제시하고 선택하도록 한다.</p>	<p>혈액암 환자의 치료 단계별, 약제별로 교육자료 템플릿을 나눠 관리할 수 있는 공유 저장소를 만들어 누구나 쉽게 불러와서 수정할 수 있게 만든다.</p> <p>AI tool을 활용하여 환자 프로파일(나이, 교육수준, 치료단계 등)에 따라 가장 많이 쓰이는 교육 문장을 필터링 할 수 있게 만든다.</p> <p>AI tool을 활용하여 교육 내용에 적합한 사진, 그림, 동영상상을 생성해 이해도를 증진한다.</p> <p>과거에 제공하였던 교육자료를 기반으로 현재 환자상태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교육자료를 추천해준다.</p> <p>교육 내용과 연관된 동영상 링크 또는 웹페이지 링크를 자동 생성한다.</p>	<p>치료 단계별, 종상별로 나뉜 카드뉴스 형태로 구성하고 환자가 본 카드 이력이 저절되도록 하여 환자가 실제로 무엇을 보았는지 확인 가능하도록 한다.</p> <p>교육 시 교육내용을 음성저작하여 환자에게 링크로 보내 원활 때나 보호자와 함께 들을 수 있도록 한다.</p> <p>교육 후 교육 내용에 대한 간단한 퀴즈를 문자로 링크를 보내고 출제할 시 보상()을 제공한다.</p> <p>실시간 채팅을 가능하게 한다.</p> <p>환자가 소통하고자 하는 내용의 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대안(FAQ)을 제시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공한다.</p>	<p>AI로 교육간호사 페르소나를 생성하여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주는 친구를 만든다(영상통화 대체)</p> <p>질의응답 챗봇기능을 삽입한다.</p> <p>환자가 직접 원하는 교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p> <p>환자가 궁금한 것을 질문할 수 있도록 Q&A 게시판을 만들고, 의료진이 회진 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p>
BEST IDEA	짧은 문답이나 체크리스트로 환자의 대처전략을 파악한다.	환자 프로파일(나이, 교육수준, 치료단계 등)을 입력하면 항암스케줄과 교육자료가 자동 완성 되도록 한다.	bubble과 같은 환자-간호사 간 One-to-Many Communication 소통창구를 만든다.		

1. 짧은 문답이나 체크리스트로 환자의 대처전략을 파악한다.
2. 환자 프로파일(나이, 교육수준, 치료단계 등)을 입력하면 항암스케줄과 교육자료를 자동 완성 되도록 한다.
3. **bubble**과 같은 간호사-환자 간 **One-to-Many Communication** 소통창구를 만든다.



경험프로토타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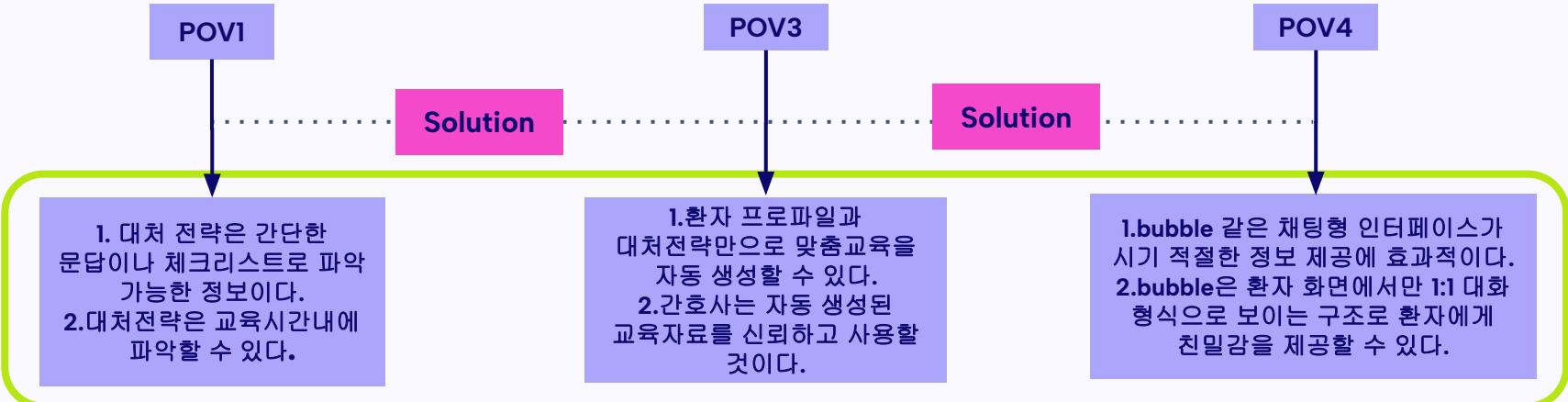


프로토타입 #1 (1->2->3->4->5)

프로토타입 #2 (1->2->3->6->7)

프로토타입 #3 (1->2->3->8)

경험프로토타입 - 검증하고자 하는 가정



1. 유효함 2. 유효하지 않음

▷이유: 대처전략은 문답으로 파악 가능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고 환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작업이다.

▷추가된 가정 :
대처전략을 교육전에 조사하면 교육자료 재구성에 도움이 된다.

1,2 모두 유효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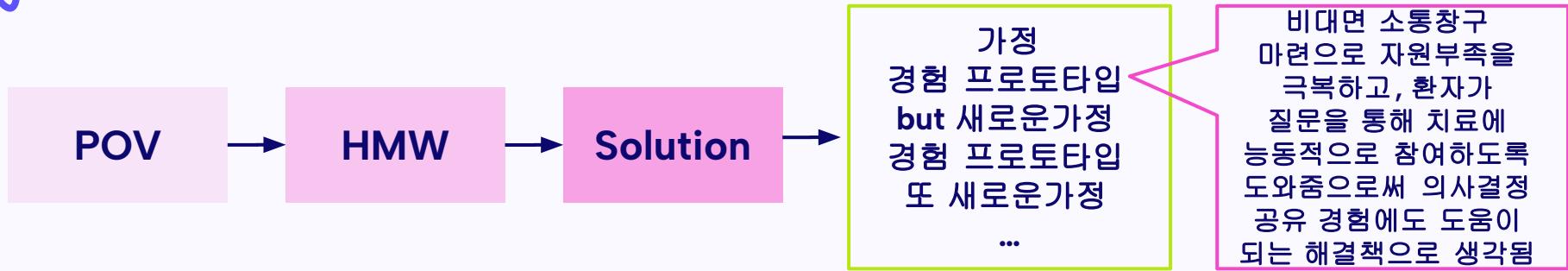
▷이유: 맞춤교육 자동 생성 요건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고, 대처전략에 따라 생성된 우선순위 교육자료가 실제 교육간호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

▷추가된 가정 :
- 교육간호사마다 선호하는 교육자료 구성 방법이 다를 수 있다.

1,2 모두 유효함

▷이유: 환자의 질문에 답해줌으로써 시기 적절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고, 프라이빗한 채팅 환경은 친밀감을 제공하면서 개인정보보호도 가능하다.

▷추가된 가정:
- 모든 교육 간호사는 같은 질문에 일관된 대답을 할 것이다.



- 이번과제를 수행하면서 발견한점들
 - 모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없다.
 - 프로토타입 테스트를 통해 수정할 부분이 명확해진다 .

- 다음단계는 ?
 - 프로토타입 테스트를 통해 발견한 새로운 가정을 반영하여 프로토타입을 수정한다 .



Thanks